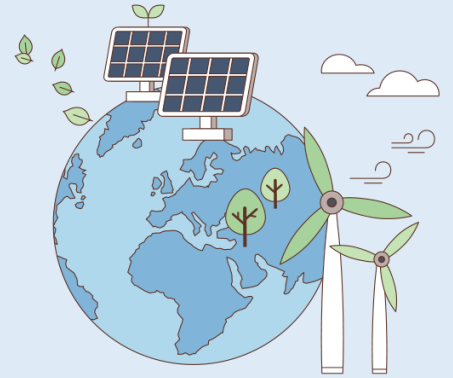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y/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모두의 어젠다' 된 기후 변화...올해부터 '신기후 체제' 이행 돌입 *매거진환경*
- 기계업계도 '2050 탄소중립' 동참...공동선언 발표 *연합뉴스*
- 생보사, 탄소·그린에너지로 지구생명 살리기 나섰다 *머니S*
- 안현호 KAI 사장 "10년 내 매출 10조 달성...ESG채권 발행도 계획 중" *파이낸셜뉴스*
- 넷플릭스, 2022년 말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시행 *이데일리*
- "석탄발전 줄였지만 원전·복합발전...탄소중립·탈원전에 역행" *이데일리*
- KB금융,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가입으로 ESG 경영 실천 *아시아경제*
- LGU+, 원격 에너지 점검 시스템 구축...ESG 경영 집중 *파이낸셜뉴스*
- 스타벅스 ESG 경영 본격화...2025년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 없앤다 *조선비즈*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ESG' 무시했다간 생존 못한다...10대그룹 중 8곳 조직 신설 *매일경제*
- LG전자, 26년 만에 휴대폰 철수... "미래차에 역량 집중" *뉴스1*
- 셀트리온헬스케어, IPO 이후 지배구조 변화는 *더벨*
- 빅히트, 1조 투입해 세계 1위 기획사 도약...주주반발·오버행은 '변수' *이투데이*
- 롯데칠성음료, 적자내던 와인 자회사 밀어주다 검찰 고발 *중앙일보*
-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연합뉴스*
- 쌍용차 법정관리행..몸집 줄이기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 ESG경영 본격화...기업시민 자문회의 첫 개최 *한국경제*
- 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 선임...노조추천이사는 '불발' *연합뉴스*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질식사고 벌금형 확정...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 계기 *경향신문*
- 소비자도 'ESG경영'에 화답...친환경 제품 매출 '쑥쑥' *이데일리*
- '인사평가 논란'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 IT·게임업계 '노조 불모지'는 옛말...3년 만에 9개 기업에 결성 *연합뉴스*
- SK건설, 신평사와 손잡고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연합인포맥스*
- 옵티머스 사태, 큰 산 넘었지만... '전액 배상' 어려운 이유? *머니S*
- 한국타이어, 안전보건 경영 결의... "생산현장 안전 최우선" *매일경제*
- 한국금융지주, 사회공헌사업 담당 신설...ESG 경영 확대 *연합뉴스*
- 포스코강판, 미안마 군부와 단절 위해 현지 자회사 지분 정리 검토 *비즈니스포스트*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ESG 바람 타고...사회책임투자(SRI)채권 100조 돌파 *서울경제*
- 윤석현 금감원장 "지속가능위해 ESG 필수 불가결" *이데일리*
- 국민연금, 국내 ESG기업 투자 본격화하나 *뉴시스*
- ESG·주주 눈치에...대기업 배당 1년새 60%↑ 12조 늘렸다 *서울경제*
- 바이든표 '그린 인프라', ESG 투자자 더 웃을까? *머니투데이*
- 거세지는 ESG 워싱 논란 *조선일보*
- 'ESG 소외' 화력발전사, 회사채 발행 멈췄다 *서울경제*
- 블랙록, 재생 가능 에너지 펀드 자금 48억 달러 조성 *글로벌이코노믹*
- 국내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량 5년 새 30배 '쑥'... 값도 169% ↑ *국민일보*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E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 현대경제연구원 21.04.05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를 수립함.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주도를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글로벌 선도기업 역시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 경제, 사회 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구조 및 에너지믹스 고려할 때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과제임.
-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선제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역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S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

- 자본시장연구원 21.04.05

- 2050 탄소중립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탄소를 수탁자책임활동의 타겟으로 삼는 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가 늘어나고 있음.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80%를 뿜어내는 167개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탄소배출기업’을 선정하여 TCFD 정보공개권고안을 토대로 주주관여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국내 수탁자책임활동에서도 탄소를 타겟으로 하는 ESG 평가기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탄소배출과다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과 함께 주주제안 제도와 정보공시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들도 ESG 경영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탄소정책,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유럽의 지속가능금융공시 최종보고서 및 기술표준 초안 주요 내용과 전망

- 자본시장연구원 21.04.05

- 2021년 3월부터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금융기관에게 투자나 상품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가 시행됨. SFDR은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사항과 판매상품 단위의 공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장환경주의 즉, 그린워싱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가 요구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인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 규정에 맞는 정보 보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는 아직까지 기업의 ESG 공개에 대한 글로벌 표준 및 기준이 없기 때문이며 정보 가용성과 질적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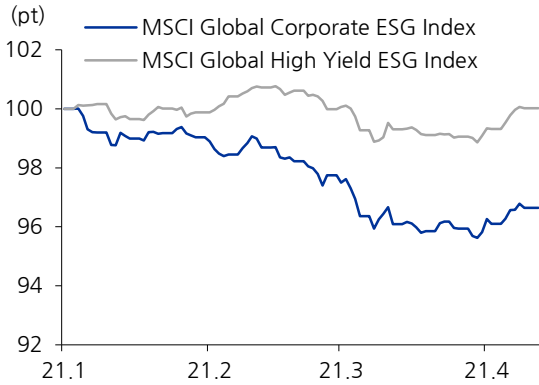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21.04.03

-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추정치에는 유의한 편차가 존재하나 그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공통적으로 관찰됨. UN의 책임투자원칙(PRI) 참여 규모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책임투자 대상 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국내 ESG 자산 규모 또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책임투자는 규모면에서 연기금 등 공적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며, 금융회사들의 ESG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ESG 평가의 가장 큰 한계는 ESG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것임.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불완전, 불충분한 정보나 대부분 획득 가능한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평가 점수의 신뢰성이 높지 않으며 대표적인 평가 기관간의 일관성도 매우 낮게 나타남.
- 업계의 ESG 성과 연구는 긍정적 제시를 하는 반면 학계의 연구들은 보통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음. IMF(2019)도 ESG 펀드의 성과가 초과 성과를 달성하거나 성과가 미달하는 둘 중 어느 경우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 ESG의 정보공개와 평가에 대한 표준 및 기준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할 큰 과제이며, 특히 정보공개와 평가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야만 그린워싱과 같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ESG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상황하에서는 주요국의 정책에 관한 산업 및 업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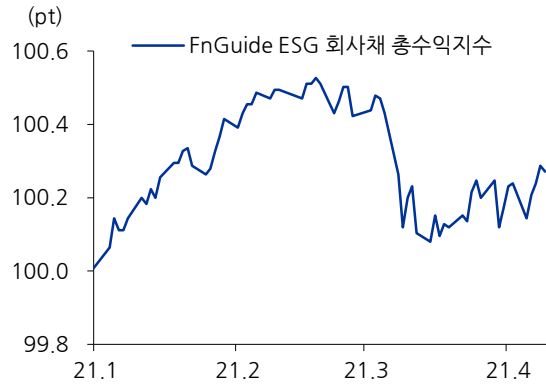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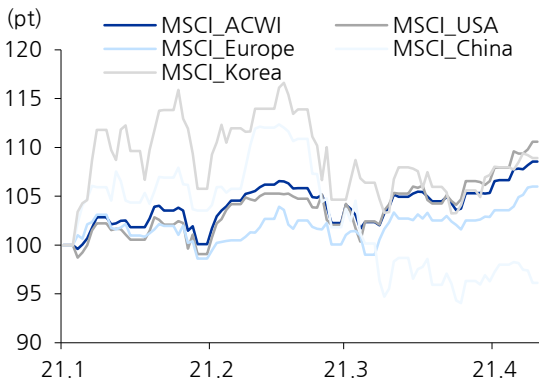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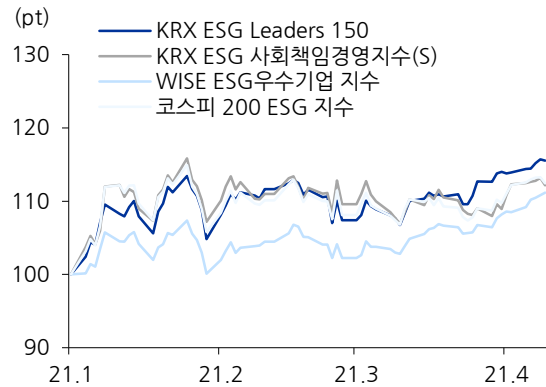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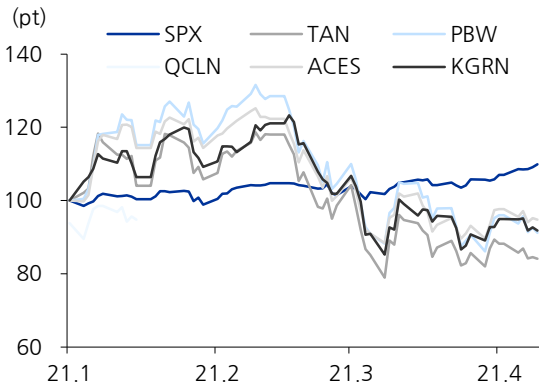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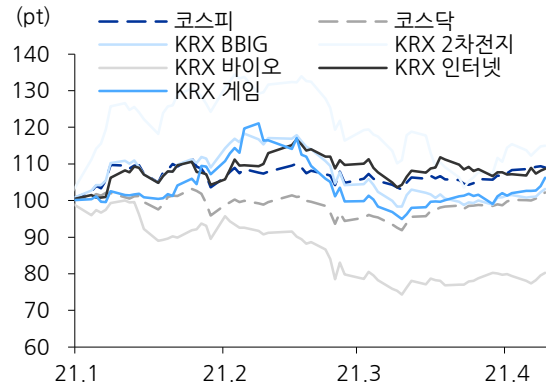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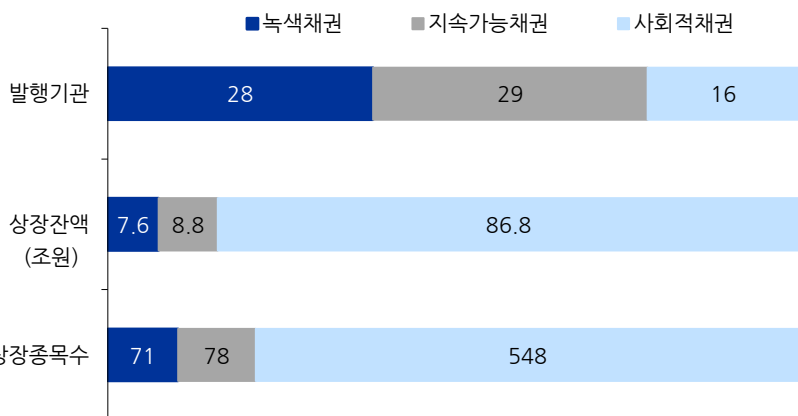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상장잔액 (백만)
지속가능채권	신한캐피탈 438-1(지)	2021/04/09	80,000
지속가능채권	신한캐피탈 438-2(지)	2021/04/09	160,000
지속가능채권	신한캐피탈 438-3(지)	2021/04/09	80,000
지속가능채권	신한캐피탈 438-4(지)	2021/04/09	30,000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2103 이(신)영 A-11(사)	2021/04/09	300,000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2103 이(신)영 B-11(사)	2021/04/09	200,000
지속가능채권	비씨카드 150-1(지)	2021/04/09	20,000
지속가능채권	비씨카드 150-2(지)	2021/04/09	30,000
지속가능채권	우리금융조건부(상)9(신종)(지)	2021/04/09	2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1)(사)	2021/04/08	138,3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2)(사)	2021/04/08	16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3)(사)	2021/04/08	2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4)(사)	2021/04/08	45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5)(사)	2021/04/08	26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6)(사)	2021/04/08	21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7)(사)	2021/04/08	1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8)(사)	2021/04/08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7(1-9)(사)	2021/04/08	1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건설기계 10(지)	2021/04/08	50,000
지속가능채권	신한금융투자 2104-3(지)	2021/04/07	10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22(사)	2021/04/07	21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단위는 백만원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3.31 기준)